

데살로니가: 일상이 이어지는 동안의 소망

어떤 질문들이 데살로니가 서신의 배경이 되었나요?

데살로니가 서신은 압박, 슬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질문에 직면한 새 공동체를 다룹니다. 그들의 소망은 실제적입니다. 신자들은 서로 격려하고, 신실하게 살며, 책임 있게 일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계속 살피야 합니다.

중단된 선교

사도행전은 바울이 성경을 바탕으로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을 설명했다고 전합니다. 일부 청중은 응답하지만, 반대로 인해 야손과 다른 신자들이 고발당합니다. 회당에서 보낸 세 안식일이 전체 체류 기간을 반드시 뜻하지는 않습니다. 편지들은 바울의 수고와 애정,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회고하여, 날마다의 완전한 연대기를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개인적인 깊이를 더합니다.

성경 참조: 행 17:1-10 · 살전 2:7-12 · 살전 2:17-20

출처: acts, letters

부활의 소망으로 슬픔에 답하기

데살로니가전서는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기 전에 죽은 신자들에 관한 염려에 답합니다. 바울은 교회의 시선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서로를 격려하는 일로 돌립니다. 본문의 목적은 낱자 계산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입니다. 이 이미지가 더 넓은 종말 이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두고 그리스도인들의 견해가 다릅니다. 안내서는 특정 예측을 복음으로 바꾸지 않으면서 이러한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성경 참조: 살전 4:13-18 · 살전 5:1-11

출처: letters

책임 있게 기다리기

서신은 기대를 거룩함, 서로의 사랑, 실제적인 삶과 연결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는 동요를 거부하고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게으름에 도전합니다. 이 가르침은 일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며, 일할 수 없는 사람이나 구직 중인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직접 저작 여부는 논쟁 중입니다. 어느 견해에서도 본문은 추측이나 이웃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인내하는 신실함으로 공동체를 부릅니다.

성경 참조: 살전 4:1-12 · 살후 2:1-3 · 살후 3:6-15

출처: letters, brown

출처

- [acts] Acts 7–28; passage references are supplied in each section. <https://ebible.org/web/ACT.htm>
- [letters] Romans through Philemon; passage references are supplied in each section. <https://ebible.org/web/>
- [brown] Raymond E. Brown, An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Doubleday, 1997), chapter 26, “Did Paul Write II Thessalonians?”.

자체 제작한 자료의 글과 이미지: CC BY 4.0. 성경 본문과 제삼자 자료는 제외됩니다.

Pauline Letters · CC BY 4.0 · <https://paulineletters.com/ko/explore/resources/thessalonica>